

부위원장 모두 말씀

-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 -

2018. 7. 9.

금 용 위 원 회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이렇게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 관계자분들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러 비영리법인 대표님들 및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비영리법인의 역할 및 기능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단순히 GDP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더 나은 삶^{*}’의 질이 중요해지며
이를 위해 비영리부문(non-profit)의 역할이 부각됩니다.

* OECD는 매년 회원국들의 주거환경, 일자리 소득 등을 평가하여 비교하는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를 발표, (한국은 17년 기준 35개국가중 28위)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는
일자리 부족, 양극화 확대, 복지수요 증대 등 사회경제 문제들은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며
정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사회구성원간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부문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금융위는 민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17.10월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18.2월) 발표

그간 금융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온
금융부문 비영리법인들의 활동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따라
사회적 경제사업 부문*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취약계층 고용확대, 자활지원, 조합원 권익향상, 지역사회 공헌 등

여러분

성실한 정보 공개와 투명한 회계처리 없이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이라도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결국 의미가 퇴색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비영리법인들의 방만한 경영, 비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비영리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현재 각 부처에 산재되어있는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을
시민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에 관한 TF' 설치 (18.3월)

국조실 주관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 개최 (1차 18.4월, 2차 18.5월)

앞으로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개선이 진행될 것입니다만

이에 앞서 비영리법인 스스로
점검해 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하고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류위주의 심사, 감독에서 벗어나
비영리법인 규모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업무편람을 제작 배포하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의
회계기준원의 ‘비영리부문 회계기준’은
투명한 회계처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인 만큼
금융부문 비영리법인들도 이에 걸맞게
가장 국민들께 신뢰받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200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Edmund S. Phelps)는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역동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역동성이 높은 사회가 되려면
새로워서 흥미롭고, 불확실해서 호기심을 돋우며,
새로운 난제에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야한다” 고 말합니다.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하고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도전하는 여러분이
바로 사회적 역동성과 혁신을 창출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비영리부문의 역동성이 사회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